

전북도,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 참가

'고향사랑의날' 맞아 홍보관 운영...고향사랑이음가입·현장기부인증 이벤트 개최 등...전북 고향사랑기부 알려

전북도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고향사랑의날' 기념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참가해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 합동 '전북 홍보관'을 열고, 대대적인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렸다.

4일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올해 처음 국가 국가기념일로 지정됐으며, 9월은 고향을 떠올리게 되는 추석이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번 박람회는 각 지자체장 유관기관장 국민 등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과 국민을 잇는다'라는 주제로 17개 전 시·도가 참석해 올해 첫 시행인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대규모로 진행했다.

전북도는 도 홍보부와 도내 실제 시·군 위치를 고려해 배치한 14개 시·군 홍보부스 그리고 방문객을 위한 이벤트부스까지 총 16개 부스를 구성해 각 지자체 소개와 함께 대표 담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 박람회'에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왼쪽 두번째) 등이 전북 홍보관을 둘러보고 있다.

품을 소개하는 장으로 많은 방문객의 호기심을 이끌었다.

또한 방문객들의 기부 문턱을 낮추기 위해 '고향사랑이음 화원가입'을 하면, 전라북도 대표 담례기념품을 선물로 받아갈 수 있는 '고향사랑이음 화원이

입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박람회 현장에서 기부한 경우 전북현대모비스 2022 카타르 월드컵 국가대표 친필사인볼 기념품을 주는 등 기부자 확보와 전북도에 대한 관심까지 높은 1석 2조의 이벤트로 호응을 얻어냈다.

전주(전대대학교 태권도 시범단과 전라북도립국악원)까지 이번 박람회를 위해 지원사수에 나섰다. 특히 도립국악원 무대는 국악부터 판소리, 농악놀이까지 알찬 구성으로 전북문화를 알리고, 기념식 당일 분위기를 뜨겁게 달궜다.

전북도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제회 '고향사랑의날'을 맞아 17개 시·도 정부가 하나 돼 온 국민과 함께 고향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자리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만들어 출중민생만 아나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주제로 '지역사회혁신과 지역경제활성화' 학술대회를 개최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모금홍보, 기부금 및 세액공제 상향 등 제도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안 등을 자유로이 논의하고, 제도 활성화에 뜻을 함께 했다.

도, 국토부 도시재생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전국 최다 선정

정읍 장명지구 45억원·남원 천거지구 43억원 확보

전북도는 2023년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서 2개소(정읍, 남원)가 최종 선정돼 국비 8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2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우리 동네살리기(부안), 지역북화(익산 임실), 혁신지구(고창) 등 전국 최다 선정에 이어, 이번 우리동네살리기 공모에도 전국에서 최다 2개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쇠퇴한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 등의 사업비를 지원해 구도심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읍 장명지구는 '차린 마을을, 마을은 사람을' 돌보는 장명이라는 주제로 총사업비 82억원(국비 45억원)을 투자하여 노후주거지정수리 지원사업과

골목길 환경개선사업, 생활안전센터 및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남원 천거지구는 '나도, 너랑 언제나 함께 도랑마을이라는 주제로 총사업비 80억원(국비 43억원)을 투자하여 70년대 수해 이후인 정착촌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지원사업과 주민활동 거점시설과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및 마을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활력센터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내 구도심 쇠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며, 시·군과 협력하여 국토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도시재생의 속도를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 혁신지구 공모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전주 덕진지구는 종합경기장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컨벤션 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전주 시에서 사업계획 보완이 완료되면 국비 2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 도민평가단 운영 위한 회의 개최... 공약조정 적정성 평가 '본격 가동'

공약 실천계획 조정 적정성 평가·권고안 제시 예정... 내달까지 3차례 운영

전북도는 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민평가단 50명, (사)한국매니지먼트스틸 친분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도민평가단(이하 도민평가단)' 운영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민선8기 김관영 도정의 공약사업에 대한 도민 참여를 보장하고 실천계획 조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 도민과 함께 추진해 나가기 위해 운영되는 도

민평가단은 이번 회의에서 '매니지먼트 운동과 도민평가단'이라는 주제로 교육이 이뤄졌다.

5개 분야를 구성한 후 정책환경 또는 재정 여건 변화 등으로 공약 조정이 필요한 24개 사업에 대해 분임별 토의 안전을 선정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2차 회의가 열리는 9월 14일에는 공약사업 이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분임별로 안전에 대해 공약 주관부서 담당 공무원에게 직접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분임토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10월 5일 3차 회의에서는 분임별 최종 토의 후 전체회의 승인을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약 조정 적정성을 평가하고, 최종의견을 전북도에 제시하게 된다.

전북도는 공약 관련 실무장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회의에서 도민평가단의 평가결과를 포함한 안전을 심의해 10월 말까지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성호 전북도 정책기획관은 "전북도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도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도민평가단의 의견을 청취하고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도민평가단이 전북 발전의 든든한 동행자이자 조력자가 돼주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3년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군산대 2학기 원광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모집

스피치 · 긴장해소 · 표현력 · 웃음코칭

스피치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원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윤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김양윤입니다.
현대의 인기가목에 맞설지 마시고 상담을 바랍니다.

전담교수 김양윤

▷ 전담교수 주요경력 <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 교수 역임
· 전북대학교 토목과 민생(노량과학) 학원 교수 역임
· 한국수석지 · 송년대회 전국 최우수 · 권수네이션인사 부서장
·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 단기 '스킬 인기 강사'
· KBS TV 아슬아슬, MBC TV, JTBC, TBS 출연 및 생방송
· 스포츠 일일리포트 · 워킹코치 · 상리상담사
· 설리상담사 · 스포츠 · 시·낭송 지도자
· 저서 "365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임실, 완주, 김제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 스피치웃음코칭(주, 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스피치웃음코칭(주)	익산, 논산, 김제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과 리더십(야), 스피치지도사(주)	군산, 서천,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 스피치학, 긴장해소, 웃음코칭 등(주, 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평생이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	남원, 장수, 순창

상당전화: 285-6676, 010-7304-5665(주, 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해 9월에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

'옛 감성체험하러 여행 떠나요'

전북도, 옛날 놀이·전통 간식 만들기 장소 9곳 선보여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 가을을 맞아 해 뜨는 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레트로 열풍과 함께 가을(할머니날 레니얼) 디지털에 맞춘 '옛날 놀이와 전통 간식 만들기 체험 여행' 9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선정된 여행지는 △군산 간치벌마을(강정만들기)△익산 용머리고을(한지 소망등 만들기) △익산 황수연 전통식품(고추장+된장 쿠키 만들기) △정읍 달고윤정정사교마을(서예술 체험) △남원 술바탕면역(목화 물레 체험) △남원 요천다슬기마을(전래놀이 4종) △김제 수류산골마을(숙게

떡만들기) △완주 두여행복드림마을(과거시절 체험) △임실 학정마을(전통 쌀엿 만들기)이다.
지난 5일부터 운영한 이달의 추천 여행지는 농촌공간여행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 여행 경비 할인 혜택과 더불어, 매일 최대 10명을 추첨하여 농촌 숙박권을 제공하여 프로모션으로 인기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촌여행 정보, 체험·숙박까지 원스톱으로 예약·결제 가능한 '전북농촌여행' 종합(www.charmapi.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도내 관광기업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 베트남 '메가어스 엑스포' 참가

전북 관광기업지원센터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개최된 '2023 메가어스 엑스포(Mega-Ur EXPO)'에 참가,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엑스포는 센터에서 추진한 관광스타트업 지속성장 Scale-up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관광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판로개척을 위해 참여했다. 센터는 군산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쥬블루프루프), 쥬피치, 소품 총 4개의 관광기업을 선정 지원했다.

이에 따르면 군산문화협동조합 로컬아이(이시자 박형철)는 친환경 이슈를 소재로 제작한 애니메이션, 지구를 지키는 슈퍼 독(Super Dog) 막방이'를 앞세워 베트남의 MAA사와 캐

릭터 IP 수출 계약(5만 달러)을 체결했다.
또 (쥬블루프루프)는 멤버십 플랫폼 '소속(SOSOK)'을 통해 베트남 현지 창업기업인 VILLIONS, 베트남의 '야늘자'로 불리는 GOJOY 등과 업무협약(MOU) 및 약 1만5천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 관광상품 '전주, 군산, 무주스케이'를 판매하고 있는 (쥬피치)와 관광 기념품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안 소금 입욕제' 생산 기업인 '소금'에도 베트남 현지 바이어 및 투자자들의 상담과 문의가 이어졌다. 자세한 문의는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063-230-4214)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1면에 이어...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진상 규명하라"

전교조 전북지부 오도영 사무처장은 "전북도교육청은 재량휴업일로 결정한 학교와 연가, 병가 등을 낸 교사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 사무처장은 "많은 교사들은 징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9월 4일에 일상을 멈춘 애도와 추모에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는 9월 4일 학교에 출근해서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과 비통함"이라고 했다.

끝으로 전북실천교육교사모임 이봉

남 회장은 "서거석 교육감의 오락가락하는 입장문을 보며, 도대체 교사들의 아픔에 공감은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9월 4일은 교육주체들을 죽임으로 내몰며 교육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구조적 문제를 짚어내고 학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회복의 날이 되어 한다"며 "전북 여섯 개 교원단체는 오늘이, 지금껏 있었던 수많은 죽음을 애도하고 교육의 공공성이 회복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